

저자 (Authors)	조정민 Cho, Jung-min
출처 (Source)	일본문화연구 63 , 2017.7, 5-26(22 pages) Japanese Cultural Studies 63 , 2017.7, 5-26(22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시아일본학회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06454
APA Style	조정민 (2017). 식민지 시기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공간과 서사 전략. 일본문화연구, 63, 5-26
이용정보 (Accessed)	동아대학교 39.113.137.*** 2020/04/25 16:3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식민지 시기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공간과 서사 전략*

조 정민

<국문초록>

본고는 1930년대 말에 발행된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표상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와카야마(和歌山)에 본사를 둔 다이쇼사진공예소가 제작한 이 엽서는 총 3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성백경』의 표상 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는 관광의 공간과 엽서의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엽서의 공간이 결과적으로 관광의 공간을 보완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둘째는 『경성백경』의 이원화 전략이다. 이 엽서는 공간적으로는 경복궁, 창경원과 같은 고적지를 주로 다루었고 인물을 다룰 때에는 지게꾼이나 기생과 같이 스테레오타입의 조선인 표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는 공간적으로 조선의 중심인 경성을 정복했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미개한 조선인을 계몽해야 한다는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서사와 기억의 왜곡이다. 특정 부분만 포착하는 사진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일부 공간의 기억과 서사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성백경』의 표상 전략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증명하는 것으로 양자는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 사진엽서, 『경성백경』, 식민지 표상, 재현의 정치, 시선의 권력

목 차

서론
제1장 관광의 공간과 엽서의 공간
제2장 『경성백경』의 전략-이원화된 경성
제3장 분절되는 풍경, 상실되는 기억
결론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5848).

서론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이 ‘경성(京城)’은 그저 서울의 옛 이름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다. 경성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한성부(한양)’를 ‘경성부’로 개칭한 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정확하게 말하자면 격하시켜 부른 것으로) 일본은 이곳을 ‘케이조(けいじょう)’라 불렀다. 조선의 한양이 아닌 일본의 케이조(경성)로의 이행은 500여 년간 이어졌던 조선시대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 명명 전략이 기도(企圖)한 바에 따라 경성은 제국 일본의 외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위치 지워지고 말았다.

경성은 일본 제국 권역 내에서는 주변도시에 불과했지만 식민지 통치 이후 집중적으로 조성된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행정, 교육, 문화 기반 시설은 그곳이 식민지 조선의 중앙이자 중심 도시임을 증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경성이 가지고 있던 공간적 지리적 중심성을 일본이 그대로 이어받아 식민지 수도를 재조직한 이른바 장소 전용(appropriation)의 예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근대화된 경성의 풍경은 일본 내지의 도쿄(東京)나 오사카(大阪)와 같은 대도시와 종종 비견되기도 했으며, 때때로 경성의 시가지 모습은 내지 도시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¹⁾ 특히 식민지 관광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성은 일종의 조선의 대리 표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거둔 식민지 통치의 결과와 근대화의 산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경성은 그 대표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었다. 당시 경성은 “조선 8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인이 남긴 많은 조선 여행기에서 보듯이 그곳은 식민지 조선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장소”(김경리 2017:295)임에는 틀림없었다.

경성 여행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경성의 경험은 상투적인 방식으로 루틴화되어 결과적으로 표상의 정치학에 가두어지고 말았다. 이는 관광의 대중화와 함께 널리 유통되었던 여행안내서, 지도, 사진그림엽서²⁾ 등에서 그 경향이 더욱 뚜렷

1) 예컨대 일본에서 태어나 경성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 가운데는 내지를 방문하고서 “도쿄, 오사카, 교토에서는 경성의 거리와 비교하여 그다지 더 대도시라고 말할만한 선망도 동경도 느끼지 못했다. 시내 전차만 하더라도 경성의 보기(Bogie)전차가 훨씬 모양도 좋고 훌륭하였다.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기차였다. 조선의 광궤(廣軌)와 일본의 협궤(狹軌)를 비교해 보면 일본 쪽이 웅색하여 숨이 막힐 정도였다.”(尾崎新二 1994:16-27)는 감상을 남기기도 했다.

2) 일본에서는 사진이나 그림 도안이 있는 엽서를 에하가키(絵はがき·絵葉書)라고 통칭하고 있으나

하게 나타났다. 경성의 요소요소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각종 이미지들은 시각 매체가 보통 그러하듯이 간명한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인지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그런 만큼 시각 이미지 주변에 머물러 있던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잉여 부분을 일거에 소거하여 메시지의 왜곡을 한층 더 용이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

그림이나 사진, 도안과 같은 시각 자료, 즉 비문자(非文字) 자료에서 보이는 표상과 재현의 정치를 통해 식민지 시기를 재조명하려는 시도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식민지 관광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생산, 소비되기 시작한 여행안내서나 기념엽서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들은 이들 비문자 자료가 문자 언어보다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제국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혁명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지를 매개한 표상 정치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선전에 지대하게 기여했음은 물론이고 식민지에 대한 왜곡된 심상 지리를 유포하는 데에도 크게 봉사하였음을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³⁾ 식민지 시대라는 정치적 혹은 시대적 상황을 대전제로 두고 있는 탓에 각 연구들에서 보이는 논지의 흐름이나 주장은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글이 놓이는 자리 역시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성에 대한 시각적 재현과 관련 상품의 생산, 소비, 유통은 식민지 관광이

용어의 한자 표기에서도 보듯이 사진보다는 그림의 의미에 방점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엽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본고에서 다루는 『경성백경』은 그림이 아닌 사진을 활용한 엽서이므로 이하에서는 편의 상 사진엽서라고 칭하기로 하겠다. 한편, 본고에서 다룬 『경성백경』(1930년대 후반 다이쇼사진공예소 발행) 및 『조선정시(朝鮮情詩)』(1930년대 다이쇼사진공예소 발행)는 동아대학교 신동규 교수의 소장 자료로서 논문 집필을 위해 제공받았음을 밝혀 둔다.

- 3)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문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田邊幹(2002) 『メディアとしての繪葉書』 『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第3号, 浦川和也(2005) 『朝鮮半島繪葉書の中の近代日本人の「眼差し」』 『環』 23, 浦川和也(2006) 『繪葉書で朝鮮総督府を見る-「朝鮮半島繪葉書」の史的価値と内包された「眼差し」』 『朱夏』(21), 浦川和也(2008)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朝鮮半島繪葉書と近代日本人の「まなざし」』 『Intriguing Asia』(111),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전수연(2010) 『관광의 형성과정을 통해 본 근대 시각성 연구-1900년대 이후 일본의 조선관광과 여행안내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수현·정창현(2011)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사진과 엽서로 본 근대 풍경)』 민속원, 최현식(2011) 『제국의 취향, 전시되는 '아리랑'-식민지 '아리랑' 엽서의 성격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75집, 최현식(2012) 『제국의 "선적인 것" 대한 전유와 소비-사진엽서 『조선정시(朝鮮情詩)』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46, 楠井清(2012) 『植民地朝鮮に対する「観光のまなざし」の形成-立命館大学国際平和ミュージアム所蔵繪葉書と文化人の紀行文を中心に』 『Art research』 12, 朴美貞(2013) 『植民地朝鮮の表象-植民地の学習と教育の「テキスト」としての非文字資料』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4집 등.

라는 이벤트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다수 발표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를 계승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경성백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1930년대 경성 관광의 주요 코스와 『경성백경』에서 재현되는 공간의 괴리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진엽서 『경성백경』이 제작되고 널리 유포되던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 조선신궁, 경성역, 용산역, 식물원, 남산공원, 남대문 등이 주요 명소로 꼽히며 이들이 소위 경성 8경으로 불리고 있었다. 철도 여행이 주를 이루던 탓에 경성역이나 용산역 그리고 경성역에 인접한 남대문은 필수적인 관광지였고 그 외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기구(조선총독부, 경성부청)이거나 종교 시설(남산공원/경성신사, 조선신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 코스와 기념엽서는 응당 호응하는 것이라 여기기 마련이지만, 『경성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엽서가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모든 근대적 제도의 시각화에 있었던 것으로, 말하자면 관광의 공간과 엽서의 공간은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양자의 괴리와 그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또 다른 관점은 『경성백경』이 경성을 묘사하면서 구사한 이원화 전략이다. 『경성백경』은 조선의 공간을 다룰 때에는 경복궁, 창경원, 비원과 같은 고적지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인물을 다룰 때에는 지게꾼이나 빨래하는 여인, 애보기, 기생 등과 같이 철저하게 스테레오타입으로 고착화된 조선인 표상을 따르고 있었다. 말하자면 『경성백경』은 경성을 공간과 인물로 이원화시키고 있는 셈인데, 고적지와 하층민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로 접근한 이원적 방식의 수사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경성백경』 내부에 존재하는 서사와 기억의 왜곡이다. 이 엽서 가운데 등장하는 장충단공원은 을미사변 때 일본군과 싸워 목숨을 잃은 장령들을 기리기 위해 고종이 1900년 11월에 건립한 사당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장소이다. 이후 장충단공원 일대에는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도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사찰 박문사(博文寺)가 건립된다. 이 두 건축물 및 공간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기억과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강력하게 긴박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독립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경성백경』 안에서 이 두 공간은 마치 별도의 시공간을

가지는 듯이 표상되어 있어 자연히 양자 사이에 길항하며 존재하는 기억과 서사의 연결고리도 해체되고 말았다. 이는 전체의 일부를 절취하여 전경화시키는 사진엽서의 표상 문법이 낳은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 무게를 두고 『경성백경』을 차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진엽서라는 시각 매체에 의해 경성의 풍경이 어떤 방식으로 절취되고 편집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경성 서사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 소비되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일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표상 정치를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제1장 관광의 공간과 엽서의 공간



『경성백경』은 총 3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엽서 뒷면에 ‘MADE IN WAKAYAMA’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세트 사진엽서는 당시 일본 와카야마(和歌山)에 본사를 두고 사제 엽서를 다수 발행하던 다이쇼사진공예소(大正写真工芸所)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 사

4) 다이쇼사진공예소는 히노데 상행(日出商行)과 함께 식민지 시기의 사진엽서 발행처로 꼽힌다. 1913-1914년 경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다이쇼사진공예소는 일본 와카야마 현에 본사를 두고 조선과 만주에서도 지점과 영업소를 운영한 당대 최대의 사진엽서 및 사진첩 제작 업체였다. 이 업체가 다룬 사진이나 그림의 범주는 인종과 풍물, 풍습 등 광범위하며 대상 지역도 일본과 조선, 만주 등 동북아시아 전방위에 걸쳐 있었다. 이 회사는 “남의 남분 것은 한사코 내어” 거는 식민지 관광엽서 제작에 그치지 않고 군대 사진첩과 군사지도 등 군사사업에 뛰어난 인쇄·제작 기술을 제공하면서 나날이 성장했다. 다이쇼사진공예소는 경성과 평양에 영업소 두 곳을 두었는데 경성의 경우 京城府本町一丁目二八(지금의 충무로 1가)에 위치한 오사카야고 서점(大阪屋号書店)이 발행과 판매를 담당했다.(太田宏一, 『大正写真工芸所について』, 『和歌山市立博物館紀要』 24号, 和歌山市立博物館編, 2010, p.13-27쪽. (최현식(2012:274)에서 재인용.)

진엽서에는 가운데는 1932년에 완공된 박문사(博文寺)와 1937년에 완공된 총독부 체신국 사진엽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1930년대 말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엽서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 사진엽서는 경성의 모습을 100 컷으로 담은 것으로 하나의 풍경이 엽서 전면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3~5 컷이 한 장의 엽서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다. 100 개의 장면을 적절하게 구분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경성백경』 분류표

구 분	장 소(캡션)	
경성 전경	경성부 전경, 남산에서 본 경성 시가	
경성 고적지	경복궁, 경복궁 박물관, 경복궁 경회루, 경복궁 향원정, 경복궁 근정전, 창경원, 창경원 박물관, 창경원 식물원, 동물원, 대운실, 덕수궁 내원, 덕수궁 석조전, 비원(3 컷), 비원 현관, 인정전, 광희문, 남대문, 남대문과 주변, 남대문 안에서 내부를 조망, 동대문, 조계사(2 컷), 동대문, 독립문, 북한산 성벽	
경성 인물 및 풍속	인물	애보기, 정장차림의 소녀, 기생(2 컷), 짐꾼, 빨래, 농부, 용기장수
	풍속	한강 풍경, 長閑(한가로움), 길 가에서의 짧은 휴식, 시골길 거리 일부(초가집), 친하대장군
	풍경 및 기타	교외 청량리, YMCA, 프랑스코회당(명동성당)
일본의 통치 기구 및 근대 시설	통치기구	총독 관저, 총독부 침탑, 관저 정문, 경성부청, 조선총독부
	종교	조선신궁 이치노도리이, 니노 도리이, 배전, 경성신사, 박문사
	철도	경성역, 경성역 안에서 남대문 거리 조망, 용산역, 총독부 철도국, 철도학교
	우편	총독부 체신국, 우체국과 미쓰코시, 경성우편국
	언론	경성일보사, 경성 방송국
	금융	상공장려관, 상공회의소,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 경성지점, 경성주식현물거래소
	학교	경성중학교, 용산중학교, 제2공립고등여학교, 제1공립고등여학교, 공립상업학교, 경성제국대학 전경, 경성제국대학 예과
	군대	용산병영 전경, 보병 제78연대, 보병 제79연대
	공원 및 운동장	장충단 공원, 파고다 공원, 남산, 남산 공원, 경성그라운드
	발전소 및 다리	한강(당인리) 발전소, 한강 인도교, 한강 철교
	광장 및 거리	조선은행 앞 대광장, 태평로, 남대문 거리, 황금정 거리, 본정거리, 남대문 거리(3 컷), 종로 거리,
	호텔	조선호텔, 조선포텔 일부

위의 분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백경』이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통치 기구는 물론이고 모든 식민지 근대의 산물(철도, 체신, 은행, 교육, 군대, 공원, 거리 등)을 시각화시키는 데 있었다.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이룬 모든 치적을 전시하려는 듯이 100 개의 풍경 속에 그것은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의하고 싶은 지점은 『경성백경』이 무게를 두고 있던 일본의 근대 기구와 시설은 경성의 주요 관광지와 중복되면서도 묘하게 어긋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당시 경성을 대표하는 8대 명소는 경성역, 용산역, 남대문, 조선총독부, 경성부청, 조선신궁, 남산공원, 식물원 등이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이나 경성부 경성관광협회가 제작한 각종 여행 안내서를 참고해 보면 반나절의 구경이든 하루 일정의 구경이든, 전차를 이용하든 지동차를 이용하든 대부분의 일정은 위의 경성 8경을 경유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정재정 2013:204-205)⁵⁾ 철도가 경성 여행의 주요 교통수단이던 당시, 경성역이나 용산역 그리고 경성역에 인접한 남대문은 필수적인 관광지였고 이와 더불어 식민지 통치 기구(조선총독부, 경성부청)와 종교시설(남산공원/경성신사, 조선신궁)은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꼽혔다.

주지하다시피 메이지유신 이후 신도가 국가화되기 이전부터 신사는 일본인들의 삶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으로 기능하였지만, 일본이 식민지에서 신사를 건설했던 가장 큰 목적은 천황 숭배를 바탕으로 한 제국 일본의 권위를 가시화시키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훈육하여 철저하게 천황 숭배를 신체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는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물론이고 조선인들까지 제국의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1925년 남산에

5) 반나절 경성 여행 코스

- 전차: 경성역-남대문-조선신궁-남대문-창경원-조선총독부-경복궁-덕수궁-경성역
- 자동차: 경성역-남대문-조선신궁-남산공원-박문사-동대문-경학원-창경원-조선총독부-경복궁-덕수궁-경성역

하루 일정 경성 여행 코스

- 전차: 경성역-남대문-상공장려관-조선신궁-남산공원-경성신사-은사과학관(恩賜科學館)-영락정-장충단공원, 박문사-동대문-종로경 4정목-경학원-창경원, 동식물원, 비원-조선총독부-경복궁, 박물관-덕수궁-미쓰코시-본정-여관
- 자동차: 위의 전차 일정 외에 파고다 공원, 종로거리, 청량리, 한강 등을 유람.

완공된 조선신궁은 거의 같은 시기의 경복궁에 건립된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짝을 이루며 일본의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양대 기념 건축물로 자리 잡았다. 이들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성 여행 코스는 내지에서 온 일본인들에게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얼마나 완벽하게 장악했는지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신궁 사무소에서는 내지 관광객들을 위해 엽서를 발행하거나 관광 도장을 만들어 찍어주는 등, 경성 내에서 조선신궁이 가지는 특별한 권위와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적극 동참하였다.(김병민 2011:34) 물론 여행 코스에는 남대문, 경복궁, 덕수궁과 같은 조선의 고적지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이미 패망하고 만 조선왕조의 과거를 상징하는 이국적인 오브제에 불과한 것이었다.⁶⁾ 조선신궁과 인접한 경성신사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박문사도 종종 경성 여행 코스에 편입되는 사정에서 보듯이 경성 여행의 무게 중심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 장악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장소에 있었고, 이는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식민지 조선 및 조선인이 일본 제국권 내부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음을 심상적으로 공유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즉, 경성 관광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장악력을 확인하며 제국 일본의 정치력을 자신의 성과로 치환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때문에 경성 관광이 다루는 장소는 대부분 식민지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엽서 『경성백경』은 식민지 근대의 모든 산물을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정치 기구는 물론이고 경제 금융, 철도, 군대, 학교, 언론 등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을 지탱하는 많은 근대적 제도와 시설들을 시각적으로 두루 나열하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근대적 시각체험의 대상, 즉 볼거리와 풍경의 대상이 되는 일종의 문화 경관도 곳곳에 배치하고 있었다.

예컨대 백화점이나 역, 광장, 도심 거리, 다리와 같이 도시 문명을 주도한 새로운 인공물들은 물론이고 공원,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과 같은 ‘자연의 인공적 변

6) 예컨대 권혁희는 사진엽서나 관광 코스에 자주 등장했던 남대문에 대해 “과거 경성이 한양이었던 시대에 남대문은 왕의 도시와 그 밖의 공간을 구분 짓던, 거대한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지만, “한양이 경성으로 바뀐 후 성벽이 무너진 남대문은 신성한 권력을 보호하는 경계로서의 상징성을 상실한 채 이국적인 건축물로 변모”해 “통제와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관광이라는 근대 소비문화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권혁희 2005:147)

<p>〈엽서 3〉 위에서부터 태평로, 총독부 침탑, 총독 관저, 관저 정문. (90.5mm×141mm)</p>	<p>〈엽서 4〉 위에서부터 경성부청, 총독부 철도국, 철도학교, 총독부 채신국.(91mm×142mm)</p>	<p>〈엽서 5〉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경성현물거래소, 경성우편국. 중앙은 동양척식회사 경성지점. (141mm×92mm)</p>

이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자연을 근대적 감상의 대상으로 취급해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조선은행 앞의 대광장, 우체국과 미쓰코시 백화점을 담은 엽서나 한강 철교와 인도교를 함께 구성한 엽서, 경복궁과 경복궁 박물관, 창경원과 창경원 박물관을 한 장에 편집하여 보여주고 있는 엽서, 또 창경원의 식물원과 동물원, 그리고 대운실 사진을 절적하게 구성하여 하나의 엽서로 보여주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엽서는 가공된 자연의 전시와 감상을 유도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자연관과 도시 경관을 구체화시키고 있었고, 철교나 인도교와 같은 근대 시설물이 변화시킨 한강 풍경도 제시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와 명예가 실추된 조선의 왕권과 왕실이 근대 식민지 도시 경성 내부에서 준-자연적인(준-인공적인) 문화 장소 및 여가 장소로 변모했음을 시사하고도 있었다.

생각해 보면 경성 관광을 통해 백가지의 경성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내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조선총독부나 조선신궁과 같은 상징적인 몇몇 장소를 통해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는 일본의 힘을 확인하며 그 감상을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키고자 했지만, 나머지 광경은 모두 엽서로 학습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일본인 관광객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숙소에서 묵고 일본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으며 쇼핑도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이루



어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내지에서 온 일본인의 경성 여행이란 이국 체험이 아니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다.(정재정 2013:207) 이처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성을 경험한 내지의 일본인들은 경성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도구로서 『경성백경』을 활용하기도 했겠지만, 실제 경성 관광과 다소 층위를 달리하는 『경성백경』의 사진들을 통해 경성 관광에서 누락된 식민지 기획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했다. 다시 말하면 『경성백경』은 경성 여행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경성에 대한 또 다른 상상력을 추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엽서를 통해 학습되거나 간접 경험된 경성의 모습은 어느새 여행이라는 행위와 합일을 이루며 하나의 공고한 경성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그림엽서의 유통과 유포는 경성에 대한 예비지식이나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물리적 거리를 훌쩍 뛰어 넘어 경성 이미지를 공유하게 만든다. 어쩌면 경성 관광객들 사이에는 경성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주변에서 입수한 여행안내서나 사진엽서, 그림엽서를 통해 경성 학습이 선행되었는지 모를 일이며,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진 경성 이미지는 실제의 풍경을 추체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상기되며 리얼리티를 확보해 나갔다. 같은 듯 다른 관광의 공간과 엽서의 공간은 그렇게 서로를 강력하게 긴박하며 식민지 도시 경성의 이미지를 보완, 보강해 나갔고 경성 담론의 저변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되기도 했다.

제2장 『경성백경』의 전략-이원화된 경성

앞의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성백경』이 의도한 바는 한양에서 경성으로 이행한 뒤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강조하며 그 결과물을 두루 전시하는 데 있었고, 그것은 곧 제국 일본의 근대 기술과 문명의 우월성을 피력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조선의 유적지는 일본이 만든 육중하고 화려한 건축물과 즉각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사진엽서를 조선과 일본을 비교하듯 나란히 놓고 보면 고색창연한 조선 고적지의 풍치는 제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근대 건축과는 달리 이미 오래된 과거로 박제되어 전시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⁷⁾ 역사적 시간의 흐름이 중지된 먼 옛날 왕조의 풍경은 경성의 역사와 전통을 적막하게 증언하며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중심을 끝내 장악하고 말았다는 안도감과 정복감을 선사한다.

조선 정복에 대한 성취감과 더불어 제국의 우월적 지위를 확신하는 순간은 사진엽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목도할 때이다. 식민지를 바라보는 서구 열강의 시선의 정치를 경성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 『경성백경』에 등장하는 조선인은 철저하게 관찰 대상이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으로 마주한 일본과 경성은 식민지 표상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탓에 그것이 전달하는 내용도 지극히 단선적이고 분명했다.

『경성백경』에는 애보기, 정장차림의 소녀, 기생(2컷), 집꾼, 한강 풍경, 長閑(한가로운), 길 가에서의 짧은 휴식, 시골길, 빨래, 농부, 지게에 용기를 진 남성, 천하대장군 등, 13컷의 인물과 풍경이 소개되어 있다. 일본이 경성에 이식한 각종 근대적 제도를 건물로 가시화시킨 사진(조선총독부, 총독부 철도국, 경성 우편국, 조선은행, 경성제국대학 등)을 대거 배치하고, 이와 대비시키듯 권위와 위엄을 상실한 조선의 궁궐을 전시한 『경성백경』은 이들 건물들에 엮서 매수를 할애한 것에 비해 인물들은 간략하고 상징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당시 일본이 포착한 인물 사진은 구대관(旧大官), 문관, 귀부인, 기생, 우편부, 석탄 장수 등 계층과 신분,

7) 당시 『경성백경』이나 『경성신대관』, 『경성명소』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었던 관광 기념엽서에서 전통 건축물의 대표 격인 궁궐과 남대문 등은 이국적인 관광 기호로 탈바꿈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백화점과 은행, 병원, 관공서, 공원 등은 근대화된 대도시 경성의 면모를 드러내는 기호로 표상되었다.(권혁희 2005:145-146)

직업 등 매우 다양했지만(浦川和也 2008:137), 『경성백경』은 그 가운데서도 일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략을 구사했다. 애보기, 정장차림의 소녀, 기생, 짐꾼, 지게에 용기를 진 남성 등, 특정 계급의 소수 인물로 경성을 대변한 이 엽서는 경성 혹은 조선을 미개하다거나 열등하다는 방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지를 더욱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경성백경』은 미개와 열등, 기묘함이라는 프레임으로 경성의 인물과 풍경을 조명하고 있는 셈인데, 잘 생각해보면 『경성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경성’의 풍정(風情)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조선 관련 사진엽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부터 그리고 가장 많이 발행된 소위 ‘조선 풍속’ 엽서 가운데서 차출된 사람들에 불과하다.⁸⁾ 다시 말하면 『경성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란 실제 경성을 대리 표상하고 있다기보다 일본이 욕망했던 타자화된 조선인 표상에 지나지

8) 1920년대 이후 근대 관광 문화의 영향으로 『경성백경』, 『평양오십경』 등의 도시 관광 기념엽서가 유행하기 전까지 줄곧 『조선풍속』 사집엽서는 인기 상품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도시 관광 기념엽서 이전에 이미 『조선풍속』 사집엽서는 대량 생산, 유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이들 사진엽서가 포착한 조선의 이미지는 그 이전에 조선을 거쳐 간 많은 서구인들의 시선을 뒤따르는 것이었다.(권혁희 2005:161-162 참조)

않았던 것이다. 일제시기에 발행된 사진엽서의 표상 정치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했던 권혁희는 ‘조선 풍속’에 등장하는 조선인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1910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인 발행업자가 대량으로 생산했던 ‘조선 풍속’ 사진엽서는 대개 10(12)장이나 20(32)장의 풍속 엽서가 한 세트의 묶여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조선인의 인종적 특성이나 복장, 성별 혹은 계층별 특징, 생활 습속, 의식주, 신앙과 의례 등 조선 관련 이미지가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특정한 인물이나 이미지가 집중적이고 무수하게 재생산되었는데, 예컨대 지게를 진 남성과 빨래하는 여성, 장승과 무당들은 지배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스테레오 타입의 타자화된 이미지로서 이들 엽서의 이미지들은 서로 유사하게 또는 같은 원판을 사용해 똑같이 복제되었다.(권혁희 2005:159, 165)

이 같은 지적은 『경성백경』의 인물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지게를 진 옹기장수와 빨래하는 여성, 기생, 장승 등은 기존에 유포되었던 조선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것이며 실제로 일부 사진은 『조선정시(朝鮮情詩)』(역시 1930년대 다이쇼사진공예소가 발행한 사진그림엽서)와 같은 다른 엽서 세트와 중복 사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성의 인물, 혹은 경성의 풍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오히려 타자화된 조선, 대상화된 조선을 반복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이들 인물들은 미개하고 열등한 조선의 이미지를 전경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미지 장치였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비루하고 초라하며 기괴하고 낯선 행색으로 등장하는 조선의 여인들과 남성들에게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다. 또 이 ‘왜곡된 인류학적 시선’(浦川和也 2006:42)으로 발견되고 진열된 인물들은 『경성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복궁이나 덕수궁, 창경원과 같은 경성의 고적지 공간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처럼 『경성백경』은 공간과 인물의 분리를 통해 이원화된 경성을 표상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수탈했다는 메시지를 물리적 공간으로 전달하고, 또 이들 고적지 공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을 선별적으로 전시하여 조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유포시킴으로써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이중적이고 기형적인 공간과 인물의 접합은 조선, 혹은 경성에 대한 일본의 통치와 지배 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

함과 동시에 식민지 관광과 더불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유통된 사진, 그림 매체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나갔다.

		
<p><엽서 11> 『조선정시』 B편 귀갓길 (88.5mm×138mm)</p>	<p><엽서 12> 『조선정시』 A편 청명한 가을 (89mm×138mm)</p>	<p><엽서 13> 『조선정시』 B편 천하 대장군 (89mm×138mm)</p>
<p><엽서 14> 『조선정시』에서 사용된 사진을 편집하여 배치한 『경성백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시골길, 농부, 천하대장군, 용기장수, 빨래. (141mm×92mm)</p> <p>사진 설명은 귀갓길/시골길, 청명한 가을/농부 등으로 상이하지만 같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p>		

제3장 분절되는 풍경, 상실되는 기억

사진엽서를 판매했던 곳은 사진관이나 인쇄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사진관에서는 일반 풍속 사진과 함께 엽서를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생산량과 소비량은 알기 어렵지만 대도시의 외국인 거류지나 토산품 가게에서 상당량이 유

통되었을 것이다. 특히 철도가 전국을 연결하게 되는 1930년대 이후에는 기차역 근처의 토산품 가게와 온천, 명승지 부근의 외국인 선물 가게 등지에서 사진엽서를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조선 풍속 사진엽서와 함께 토속 상품으로 조선인 인형을 판매하기도 했다.(권혁희 2005:96) 엽서 발행 사진관이나 인쇄소는 물론이고 관광 명소와 인근 선물 가게에서 다량으로 취급되며 광범위하게 소비되었던 사진엽서는 그 판매량과 유통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것이 비교적 엽가인데다가 여행지의 풍경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이었던 만큼 많은 양이 생산되고 소비되었음은 분명하다.(毛利康秀 2016:19)

그런데 사진엽서는 조선 관광을 기억, 추억하기 위한 기념상품이기도 했지만 지정된 수신자와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엽서라는 매체는 먼저 발행자(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와 더불어 구매자(보내는 이)와 특정 수신인(받는 이) 사이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田邊幹 2002:7, 浦川和也 2005:164) 사진엽서로 수발신하는 경우, 경성에 대한 예비지식이나 여행 경험이 없는 이에게도 이 엽서는 공유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묶음으로 보았을 때와는 다른 층위의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⁹⁾ 앞에서 살펴본 여행 공간과 엽서 공간의 차이, 그리고 공간과 인물을 통한 이원적 접근 및 전략은 경성 여행 경험이 없거나 세트로 소장하지 않으면 거의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묶음이 아니라 낱장으로 사용하거나(보내거나) 소장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생성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전체 정경 가운데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포착하는 사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경치가 분절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속의 내러티브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장충단과 박문사를 들 수 있다.

남산의 동북쪽 기슭에 자리한 장충단은 을미사변 때 일본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장령(將領)을 기리기 위해 고종이 1900년 11월에 건립한 사당으로, 명성

9) 원본 자료를 보면 소인이 찍힌 실제 사용된 엽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성백경』은 경성 여행의 기념물로 취급되는 면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황후 시해 사건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장충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으나 1909년 10월 15일 장충지제(獎忠致祭)를 마지막으로 제향은 더 이상 거행될 수 없었다. 이는 아마도 1909년 10월 이후 통감부 정치를 거의 마무리하고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절차만 남겨 둔 시점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순국한 이들을 위한 제사를 일본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윤기엽 2016:256) 1909년 10월 마지막 제사 직후인 같은 해 11월, 장충단에서는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의 사망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성대하게 열린다. 이후 일본은 이곳에 광장과 연못,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벚꽃나무를 심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공원으로 조성해 갔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한 지 20년이 되는 1929년에는 그를 추모하는 사찰 건립이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1932년 10월 장충단에는 그의 이름을 딴 박문사(博文寺)가 자리하게 된다. 또 사찰이 자리한 언덕은 그의 아호 춘무(春畝)를 빌려 춘무산이라 불렀다.(미즈노 나오키 2009:387) 원래 박문사는 출소자나 고학생을 돕고 불교학교를 설립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종교 시설로 인식되기 보다는 남대문, 조선신궁, 경성신사 등과 함께 유명 관광지로 소개되며 관광 코스에 편입되어 갔다.(미즈노 나오키 2009:393) 말하자면 남산 일대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동화주의의 성지(聖地)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김백영 2009:75)

여기에서 박문사가 장충단공원에 건립된 배경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산에 거류구역을 만들고 거주하고 있던 일본은 이미 1897년 남산 일대에 임진왜란 때 왜병의 주둔지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왜성대공원(倭城大公園)을 만들었고 이 왜성대공원은 이듬해에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 1916년부터 경성신사)에 편입된다. 이어서 일본은 1910년 왜성대공원 서쪽에 한양공원(漢陽公園)을 조성하였고 이후 1925년 조선신궁(朝鮮神宮)을 건설하면서 한양공원을 폐쇄하였다. 이렇게 남산 일대에서는 공원에서 출발하여 종교시설로 이행하는 과정이 두 차례나 이루어졌는데 이는 장충단공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을 조성해 놓고 이를 매개로 종교 시설을 건립해 피식민자의 정신과 신체를 지배하고 감시하려 한 것은 경성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식민지 정책 중 하나였던 것이다.(윤기엽 2016:265-266) 결과적으로 장충단공원 동편에 자리한 박문사는 경성신사, 조선신궁과 더불어 조선인의 정신적 지배와 감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수행적 장소로 자리 잡았고, 내지의 일본인에게는 경성 관광의 대표 명소로 소개되면서 관광 코스에 편입되어 갔다. 특히 박문사는 중일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의 위령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했는데, 위령제가 있을 때면 경성부 내의 각 학교 대표 및 제 단체의 대표들이 반드시 참석하였다. 또한 일본 고위 관료나 저명인사가 경성을 방문할 때에는 빠지지 않고 이곳을 들리기도 했다.(김병민 2011:38)

위에서 확인했듯이 장충단공원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비극적인 사건에서 이도 히로부미의 추모로 연속되어 이어져 갔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엽서 15>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충단공원, 파고다공원, 남산, 남산공원. (141.5mm×91mm)



<엽서 16>
춘무산 박문사 (142mm×92mm)

바친 장졸(將卒)들의 넋을 기리던 곳은 어느새 조선을 침략하고 수탈한 일본인 초대 통감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말았고 그런 가운데 전자에 대한 기억과 서사는 후자에게 잠식되어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근대 공원으로 탈바꿈한 장충단공원은 파고다공원, 남산공원과 함께 『경성백경』에 등장했고 춘무산 박문사는 장충단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듯이 별개의 사진엽서로 제작되어 유통되었다. 이렇게 한 공간을 분리, 절취시켜 만든 두 사진엽서는 양자 사이에 길항하며 존재하는 서사와 기억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있으며, 예비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두 엽서를 가지고 양자 사이의 연관을 떠올리거나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¹⁰⁾ 각각의 사진엽서가 단독으로 유통, 소비된다면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공간의 특정 부분을 취사선택하는 행위가 결국은 기억과 서사의 분

10) 백락의 파괴와 왜곡은 박문사의 건축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박문사는 경희궁의 흥화문을 가지고 와서 정문으로 사용하고 역대 국왕의 초상화를 모신 경복궁 선원전을 옮겨 와 음식을 만드는 공양간으로 사용했으며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원구단의 석고전을 종루로 활용하는 등, 조선의 주요 문화재를 훼손시켜 절취하고 있었다.

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장충단공원과 박문사 사진엽서는 대변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사진’, ‘엽서’라는 매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사의 조작과 왜곡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¹¹⁾

결론

일본에서 사진그림엽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0년 10월이다. 우편법 제정에 의해 사제엽서의 인쇄,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그림엽서 발행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커다란 인기를 모은 것은 1904년부터 시작된 러일전쟁 때였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러일전쟁은 미증유의 규모로 치러진 전쟁으로 인식되었으며, 그것이 점차 장기간에 이르는 소모전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력은 총동원되고 병사들의 희생도 크게 따르게 되었다. 시시각각 전황을 전하며 국민적 관심을 한 데 모은 것에는 신문과 잡지의 영향이 지대하게 작용했지만, 역사성이 비교적 짧은 사진그림엽서라는 매체는 그것이 가지는 시각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전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체신성(逓信省)이 발행한 사진그림엽서를 앞 다투어 구입하고자 했고 일각에서는 혼란 속에서 소년 두 명이 절식사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당시의 엽서 구매 욕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向後惠里子 2003:104, 浦川和也 2005:162)

당연한 지적이지만 전쟁이라는 국가적 사건을 옮기는 사진그림엽서에 어느 정도의 사실성, 혹은 진실성이 담보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것은 전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실을 보다 명징하게 전달하는 데에도 일정의 목적을 두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선행되는 가운데 거기에 맞는 정보

11) 『경성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경성관광협회의 『경성안내도』 및 『경성유람안내도』를 들 수 있다. 이 안내도에는 홍릉, 장충단과 같이 일제에 항거한 유적지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홍릉과 장충단은 자신들의 과오를 되새기게 하는 곳이므로 가급적 언급을 피해야 할 장소이지만 지도상에는 그 명칭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원종혜는 대한제국의 역사성을 일본이 계승, 관리하고 있다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한 일본의 의도된 전략이라 해석하였다.(원종혜 2016:154) 이에 비해 사진엽서 『경성백경』은 사진과 엽서라는 매체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연속적인 혹은 전체적인 맥락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분절적인 공간의 기억과 서사를 전경화하게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를 수합하는 형태로 엽서 제작이 왕왕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가 아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하게 반영되었는가에 방점을 둔 이른바 ‘시선의 정치’, ‘재현의 정치’는 이후 일본이 식민지 조선 각지에서 포착한 사진과 그림에도 반복되었으며 그것은 사진엽서 및 그림엽서에 그대로 등사되었다.

1930년대 후반, 즉 식민지 말기에 발행된 사진엽서 『경성백경』은 그동안 축적되었던 경성의 이미지 혹은 조선의 이미지가 얼마나 단선적인 문법에 따라 조형되고 정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¹²⁾ 실제보다 선행되어 전형화된 조선인의 이미지는 퇴영적이고 미개하며 또 열등했으며, 왕권을 상실한 조선의 궁궐은 식민지의 낮은 풍경을 대변하는 일종의 장식물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들과 대비적으로 전시된 식민지 근대는 웅장하고 육중한 무게감을 과시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다루는 범위도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등 광범위했다. 이러한 경성의 풍경은 그곳이 더 이상 조선의 한양이 아닌 일본의 경성임을 증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진엽서로 경성을 체험하다는 것과 실상의 경성을 체험한다는 것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이며, 심지어 사진엽서는 실재보다 더욱 실재와 같은 경성을 대변하고 있지만 그것은 재현(사진엽서)과 실재사이의 역전 관계를 얼마든지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경성 여행에서 누락된 부분 혹은 여백의 부분을 사진엽서가 보완하고 그러한 가운데 사진은 어느새 실정성을 가진 하나의 살아있는 풍경으로 되살아나 하나의 현실을 구성하게 된다. 이처럼 객관적 혹은 과학적 눈으로 검증하기 보다는 경성이라는 표의에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수렴해 놓고 그것을 유통 구조 속에 놓고 소비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지(Image)와 이데올로기(Ideologie)를 합쳐서 만든

12) 물론 여기에서 엄격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은 『경성백경』 이전에 발행된 사진그림엽서 가운데 어떠한 사진들을 『경성백경』이 선별적으로 다루며 전유, 유용하였는가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 ‘일한합병기념’ 엽서를 시작으로 1주년에서 10주년까지 관제엽서를 간행한 바 있는데 하나같이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 ‘발전’된 조선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특히 시정 기념엽서는 근대화된 거리, 신식 교육현장, 새로 들어선 공장 등을 전근대적인 옛 모습과 대비적으로 배치했다.(김수현·정창현 2011:126) 『경성백경』이 치중할 일본식 근대의 선전은 관제엽서의 프레임으로부터 다분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엽서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후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말인 이마골로기(Imagologie) 정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성 백경』은 타자의 현실을 표상 양식으로 전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된 표상 양식에 현실을 따르게 만드는 역설의 시공간 경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표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비약과 괴리, 그리고 역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표상 담론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교란하는 서사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자에 대한 비교 고찰이 시도될 때 사진엽서에 담긴 의미도 보다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경리(2017) 「그림엽서 봉투도안으로 보는 관광의 상품성과 경성」, 『日本學報』 110, p.295.
- 윤기엽(2016) 「장충단·박문사의 사적(史的) 변천과 그 의미-일제강점기 장충단의 공원화와 박문사 건립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85집, pp.256-266.
- 원종혜(2016) 「일제시대 觀光地圖에 조명된 京城 관광의 이미지」, 『역사와 경계』 Vol.100, p.154.
- 정재정(2013) 「일제하 동북아시아의 철도교통과 경성」, 『서울학 연구』52, p. 207.
- 최현식(2012) 「제국의 “선적인 것” 대한 전유와 소비-사진엽서 『조선정시(朝鮮情詩)』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46, p.274.
- 김병민(2011) 『1930년대 觀光名所로서의 京城 이미지」, 홍익대학교 대학원, pp.134-38.
- 김수현·정창현(2011)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사진과 엽서로 본 근대 풍경』, 민속원 p.126.
- 김백영(2009)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조선신궁의 건설과 활용을 중심으로」, 『인천학 연구』 Vol.11, p.75.
- 미즈노 나오키 지·조원준 역(2009)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p.387, p.393.
-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pp.96-155.
- 毛利康秀(2016) 「近代觀光の発達におけるコンテンツツーリズムの萌芽に関する研究」, 『コンテンツツーリズム学会論文集』 3, p.19.
- 浦川和也(2008) 「近代日本人の東アジア・南洋諸島への「まなざし」-絵葉書の史的価値と「異文化」表象」,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40集, p.137.
- _____ (2006) 「絵葉書で朝鮮総督府を見る-「朝鮮半島絵葉書」の史的価値と内包された「眼差し」」, 『朱夏』第21号, p.42.
- _____ (2005) 「朝鮮半島絵葉書の中の近代日本人の「眼差し」」, 『KAN』 vol.23, pp.162-164.
- 向後恵里子(2003) 「逋信省発行日露戦役記念絵葉書-その実相と意義」, 『美術史研究』 41,

- 早稲田大学美術史学会, p.104.
田邊幹(2002)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 『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第3号, p.73.
尾崎新二(1994) 『もう僕は京城っ子には戻れない』, 山口県コロニー協会, pp.16-27.

■ Abstract

Space and Narrative in *Gyeongseongbaekgyeong*

Cho, Jung-min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representational strategies applied in *Gyeongseongbaekgyeong*, photo postcards issued in the late 1930s. The findings from analyzing these representational strategies were as follows. First, given how the actual spaces of tourism were different from the spaces featured in the postcards, it was found that the spaces in the postcards eventually served the role of complementing the actual spaces of tourism. Second, a dualist strategy was found when analyzing the development of *Gyeongseongbaekgyeong*. These postcards covered historic sites such as Gyeongbokgung for their spatial subject matter while repeatedly using the stereotypical representations of the Joseon people, such as the *gisaeng*, for human subject matter. Such a strategy conveyed the message that Japan had spatially conquered Gyeongseong, and supported the legitimacy of Japan's colonial rule over the "uncivilized" Joseon people for the purpose of their supposed enlightenment. Lastly, there were distortions of both narrative and memory inherent in the postcard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otographs capturing only specific parts of constructs, buildings or locations in the same space were represented as if they belonged to a separate time and space solely based on the photo postcards.

Key words : Photographic Postcard, *Gyeongseongbaekgyeong*, Representations of Colonial Korea, Politics of Representation, Hegemony of the Viewer

■ 日本語抄録

植民地時代の絵葉書『京城百景』の空間とナラティブ

趙 正民

本稿は1930年代末に発行された絵葉書『京城百景』の表象のストラテジーについて三つの観点から分析したものである。まず、観光の空間と絵葉書の空間の相違に注目し、絵葉書が観光の行為を補完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それから『京城百景』の二元化戦略について注目した。このはがきは空間的には景福宮、昌慶苑のような古跡を主に扱いながら人物は芸妓のようなステレオタイプの朝鮮人表象を繰り返していた。これは空間的には朝鮮の中心である京城を征服したことを強調するとともに、未開の朝鮮人を啓蒙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植民地統治の正当性を確保するためであった。最後にナラティブと記憶の歪曲である。特定の部分のみを捕らえる写真の特徴から、空間の記憶とナラティブの間には乖離が発生したりもした。『京城百景』の表象のストラテジーは日本の植民地支配イデオロギーの影響を証明するものとして、両者は共犯関係にあった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絵葉書、『京城百景』、植民地表象、再現のストラテジー、視線の権力

<필자인적사항>

성 명: 조정민

소 속: 부산대학교

연락처(이메일): jungjung21kr@naver.com

투고자감일: 2017.04.30

심사개시일: 2017.05.15

게재확정일: 2017.06.15